

삼신불 복장물 봉안불사 100일기도

법왕사는 지난 9월 2일 주조가 끝난 삼신불을 법왕사 대적광전으로 이운하여 본격적인 봉안불사를 봉행합니다. 이어서 10월 3일에는 삼신불을 앉힐 좌대가 도착하고 약 2개월에 걸쳐 개금을 한 다음 오는 12월 18일 봉안 및 점안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 삼신불 봉안을 앞두고 복장물을 접수하고 있으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화신 - 석가모니불



▲ 법신 - 비로자나불



▲ 보신 - 노사나불

금란가사(3벌, 각 500만원) | 복장물함(3개, 각 500만원) | 장삼(3벌, 각 100만원)

대적광전 삼신불 봉안 부처님 복장물 접수합니다

오보(다섯가지 보배)	거부 장사가 되길 원하는 불자	각자지참
오곡(쌀, 보리, 대두, 조, 기장)	음식이 풍요롭기를 원하는 불자	2만원
오사(다섯가지 실)	좋은 인연을 가지길 원하는 불자	2만원
오향(다섯가지 향)	몸에는 법신, 법계의 향내가 나길 원하는 불자	2만원
오화(다섯가지 꽃)	아름답기를 원하는 불자	2만원
오금(다섯가지 비단)	좋은 옷이 생기길 원하는 불자	2만원
오경(다섯가지 거울)	심신이 깨끗하길 원하는 불자	2만원
오약(다섯가지 약)	번뇌를 멸하고 건강하길 원하는 불자	2만원
오필(다섯가지 붓)	학문이 수승하길 원하는 불자	2만원
오병(다섯가지 병)	집안을 장식하길 원하는 불자	2만원
다라니	권력이나 진금을 원하는 불자	2만원
경면주사	삿된 귀신이 침노하지 않기를 원하는 불자	2만원

동참계좌 ○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 농 협 702010-51-106490 법왕사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한결 같은 마음

해오름요양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T. (053)766-5767 F. (053)766-5095
www.silver79.kr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2017. 10 | Vol. 274호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해오름요양원
한결 같은 마음

추석차례 동참안내

추석은 음력 설과 함께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입니다. 음력 8월 15일 추석은 가위·한가위라고도 하며 가을의 한가운데라는 의미로 중추절(仲秋節)이라고도 합니다. 이때는 농경민족인 우리 조상들은 봄에 심어 여름 동안 가꾼 곡식과 과일들이 익어 수확할 계절이 되었고 1년 중 가장 큰 만월 날을 맞이하였으니 즐겁고 마음이 풍족하여 이 날을 기려 조상들에게도 차례를 올렸습니다.

법왕사에서는 매년 추석을 맞이하여 평생위패를 모신 불자들이나 불교식으로 차례를 모시고 싶은 불자들을 위해 여법하게 차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법도에 맞게 불교식을 가미하여 올리는 차례는 선망부모와 유주무주 일체 고향들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천도의 의식도 될 것이며 부처님의 음덕을 기리고 부처님의 불을 조상들에게 전하는 기회가 되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일 시 : 2017년 10월 4일(음력 8월 15일) 오전 10시
- 장 소 : 법왕사 복지관 4층 대적광전
- 동 참 : 단독차례 - 30만원 / 합동차례 - 영가 1위당 5만원
- 설 판 : 10만원(가족 축원)
- 문 의 : 법왕사 종무소(053-766-3747)



2017
10

Vol. 274호

- 04 깨침의 향기
좋은 마음 쓰면 좋은 인연 만난다 · 원공당 정무 대종사
- 06 비슬산방
대승보살의 참된 삶 - 육바라밀(1) · 실상 주지스님
- 08 법왕논단
맹목적 광신은 비극의 원천 · 본원스님
- 12 불교의 보살들
고통에 찌든 중생의 몸과 마음 어루만지다
- 16 명찰 순례
4대 총림 중의 한 곳 충남 예산 덕숭산 수덕사
- 20 부처님 십대제자
아난 존자 경전 결집 이끌어내다
- 24 해오름 요양원 - 함께 알면 좋아요
독서의 중요성과 필요성
- 28 법왕사소식
- 30 법왕사계시판
- 33 해오름소식
- 34 해오름계시판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 등록일_2012년 9월 14일 | 등록번호_대구, 라 07721 | 발행처_대한불교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www.bubwangsa.or.kr | 발행일_불기 2561(서기 2017)년 9월 01일 발행 | 통권 274호 | 종무소 T. (053)766-3747-9088 F. (053)767-6095 | 발행 겸 편집인_실상스님(권오범) | 인쇄인_강영도 | 편집위원장_원인스님 | 편집위원_모도, 영일, 상철, 자행, 자유, 강선옥 | 기획·제작·디자인_다산미디어 (053)424-3322

법왕지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더욱 알차고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란합니다.

좋은 마음 쓰면 좋은 인연 만난다

원공당 정무 대종사



자식을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도록 키웠다면 자식이 선택한 배우자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식을 제대로 못 키웠기 때문에 떠느리 감에 대해 그렇듯 못마땅해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결혼할 때 진정으로 생각해야 할 점은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로 결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자세일 때 비로소 결혼이라는 것도 상호 구속이 아니라 진정 상대방을 더욱 자유롭게 해 주는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체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친구를 만나고 결혼하고, 올바른 사회를 건설하려는 것 등의 모든 행위는 더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며, 주인으로 살아가는 길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도 마음공부를 해야 합니다. 마음공부를 통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최고 최선으로 관리할 때, 좋은 배우자와 인연이 맺어지게 됩니다. 자식이 철을 끌어당기듯 자신의 마음이 밝고 건강하면 상대방도 밝고 건강한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호전되어 결혼까지 끌인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공부를 하지 않으면 전생 업에 질질 끌려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기간도 좋은 인연이 만났을 때는 행복하

겠지만 나쁜 인연이 만났을 때는 불행한 삶을 살겠지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면 전생 업을 녹일 수 있습니다. 이생에 환골탈태(換骨奪胎)가 가능합니다. 수행을 통해 주인공을 바로 보고 주인공이 확실하면, 귀신도 전생 업도 그 사람을 흔들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설령 결혼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성질이 고약한 남편, 혹은 아내를 변화시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그저 믿는 것이 아닌 수행을 통해 부처님 말씀을 체득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자기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일체중생은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一切衆生 悉有佛性)’를 말로만 외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존귀하다는 것을 체득하고, 아내를 존경하고 남편을 존경하면서 살아가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생 도반(道伴)으로 살아갈 때 행복한 가정은 절로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숙명론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인연에 따라 이루어지되 머나먼 과거생의 인연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 이생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많은 작용을 합니다. 삶은 마음을 빌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화엄경』에 ‘선용기심(善用其心), 그 마음

을 잘 쓰라’는 부처님 말씀이 나옵니다. 평소 좋은 마음을 잘 쓰면서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인연이 오기 마련입니다. 만일 전생에 어떤 피치 못한 악연이 있어 잘못된 결혼을 하게 될 인연이 있었다면 슬쩍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산에 가서 ‘아’ 하고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듯이 내가 좋은 마음, 행복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도 좋은 마음, 행복한 생각을 갖기 마련입니다. 절대 남 탓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내탓입니다.

집안 좋고 학벌 좋아서 남들이 보기에는 최상의 조건을 가진 사람을 골라 결혼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 관리를 잘 해서 평소 생활 속에서 좋은 마음으로 잘 살아야 그 결혼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부부가 ‘깨달음으로 향해 함께 걸어가는 도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열정적인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둘 사이에서 낳은 자식 사랑 또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힘써 평생을 모은 재산도 죽을 때는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삼일수심천재보(三日修心千載寶), 백년탐물일조진(百年食物一朝塵)’이라 삼일 닦은 마음은 영원한 보배요, 백년 탐한 재물은 하루아침의 티끌입니다.

원공당 정무대중사 열반 3주기 추모 범어집 『인생졸업장』에서

대승보살의 참된 삶 - 육바라밀(1)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대승불교에서 참된 수행자를 뜻하는 보살은 흔히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존재로 말해지곤 합니다. 여기에서 보살이란 이미 보리심을 일으켜 깨달음을 구하는 중생이자 성불의 길로 들어선 존재를 뜻합니다. 보살은 보리살타(普提薩陀)의 줄임말로 ‘깨달음을 얻은 중생’이란 뜻인데 원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의 구도자였을 때의 모습을 표현한 말입니다. 말하자면 장차 깨달음을 이룰 중생이란 뜻이 강하게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이러한 보살이 수행의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 권장되는 최고의 덕목으로 육바라밀(六波羅蜜)이 있습니다. 육바라밀은 ‘이 언덕’에서 뛰어야 하는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이상경인 ‘저 언덕’ 열반의 세계에 이르도록 하는 여섯 가지 방편으로 ‘보시(布施), 지계(持戒), 인욕(忍辱), 정진(精進), 선정(禪定), 지혜(智慧)’를 말합니다.

보시란 자비로운 마음으로 남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주는 것으로, 재물을 베풀어 주는 ‘재보

시'가 있고, 마음의 안락과 참다운 삶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법보시'가 있으며, 또 계를 지니어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으며,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의보시'가 있습니다. 만약 베풀어 줄 물건도 없고 남에게 전해 줄만큼 부처님의 말씀도 아는 것이 없으면 자기 몸으로써 남을 돕는 것도 훌륭한 보시이고 아주 짧은 단 한마디의 부처님 말씀이라도 크나큰 공덕이 됩니다.

보살행은 남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이 근본이므로, 보시를 할 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주었다는 생각조차 없어야 합니다. 이를 다시 말해 '무주상보시(無住上布施)' 라고도 합니다.

흠급 가난한 사람에게 한 벌의 옷이나 음식을 주는 것 등은 눈에 보이는 재물로써 보시하는 것이요, 부모와 자식, 친구나 이웃, 국가를 위해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희생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재물을 보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어 베푸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부처님께서는 진리에 어두워 온갖 욕심과 집착에서 헤어나갈 줄 모르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감로수와 같은 불법을 전해서, 지혜를 얻게 하여 참되게 살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가난과 복덕, 행복과 불행은 다 마음가짐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계'는 부처님께서 금하신 계율을 지켜 범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계(戒)를 그릇에 비유하는데, 계행을 지키지 않으면 수행자는 깨진 그릇과 같아서 지혜와 공덕 등 그 무엇도 담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계율에는 '대승계'에 삼귀의계, 삼취정계, 십중금계, 사십팔경계 등이 있고, '소승계'에는 오계, 팔계, 십계 등 재가불자를 위한 계와 비구의 250계, 비구니의 348계, 사미계, 사미니계 등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특히 수행인에게는 계율이 새의 두 날개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윤리도덕과 사회질서가 혼란스러운 때에 이러한 계율은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인욕'은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참고 견디어 이겨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온갖 욕망, 갈등과 외부로부터의 자극, 즉 유혹이나 모멸 등을 수행을 성숙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아 감수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이 언짢고 화나는 마음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거의 이루어 놓고도 한 순간 마음을 참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진리를 깨치신 것도 위대한 사람들이 그러한 자리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도, 알고 보면 모든 참기 어려운 것들을 능히 인욕하고 애써 노력하여 얻어진 결과입니다. <계속>

맹목적 광신은 비극의 원천

본원스님 / 명상수행원



“일찍이 그 예가 없는 이 비극적인 사태는 단순히 문화충돌 때문이라든가 종교적 신념 차이, 또는 이슬람 원리주의 과격단체만이 저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 심성에 깃든 악의 단면을 드러낸 일로써 ‘순수한 이성의 힘을 잃으면 누구나 절대 신을 향한 이기적, 배타적 욕망이 부추기는 맹목적 광신에 사로잡힐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인간의 가장 큰 적은 저 멀리 밖이 아닌, 저마다 마음 한 곳을 차지하고 있는 거친 형태의 심성이 짓는 사유방식이다.”

인류 비극의 단서, 이슬람 태동

2001년 뉴욕의 초고층 무역빌딩을 두고, 공중 납치한 민간 여객기로 충돌, 폭발시켜 잿더미로 만든 9·11테러는 인종간 대립관계의 단순한 적대행위 차원을 뛰어넘어 종교를 빙자한 순교자적 신의 복종인(이슬람)을 내세운 정화되지 않은 뒤틀린 인간 심성에 깃든 잔인한 일면을 여과없이 보여준 일로써,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전율할 대사건 중 하나로 손꼽을 비극이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조직의 하나인 빈 라덴과 알 카에다의 지령을 받은 4명의 젊은 이라크계 청년들이 자행한 이 사건은, 한

순간 2,800여명의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고 102층 무역센터가 화염에 녹아내리는 전대미문의 참화를 지켜보면서 세계는 추모의 물결 속에 한동안 허탈과 경악을 금치 못하는 엄청난 충격과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범인들은 상당시간 비행학습을 하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그날 수백명의 승객을 태운 여객기를 납치, 승무원을 사살하고는 빼앗은 조종간을 잡은 채 무역빌딩을 향해 곡예비행으로 돌진하며 충돌하기 직전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올린 녹음된 음성 기도문이 폭발된 비행기 블랙박스에서 회수되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소리가 담겨 있었다.

“우리가 하는 이 성전(聖戰)이 한편으론 두렵기도 하나, 신의 대리인 마호메트의 뜻에 따라 순교함으로써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짐에 형제들과 알라신의 영접과 은총이 기다리는 천국의 문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것을 생각하며 위안을 삼는다.”

모두가 입이 있어도 무어라 할 말을 잇을 만큼 극악무도하고 참혹한 9·11테러가 있고서 비극의 원인을 찾고자 사회 각계 인사가 모인 좌담회에 참석한 미국의 한 주립대 교수인 아랍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이렇게 진단한다.

“일찍이 그 예가 없는 이 비극적인 사태는 단순히 문화충돌 때문이라든가 종교적 신념 차이, 또는 이슬람 원리주의 과격단체만이 저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 심성에 깃든 악의 단면을 드러낸 일로써 ‘순수한 이성의 힘을 잃으면 누구나 절대 신을 향한 이기적, 배타적 욕망이 부추기는 맹목적 광신에 사로잡힐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인간의 가장 큰 적은 저 멀리 밖이 아닌, 저마다 마음 한 곳을 차지하고 있는 거친 형태의 심성이 깃는 사유방식이다” 고 하였다.

9·11테러 이후, 아랍권(이슬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1972년 뮌헨올림픽 당시, 이스라엘 선수들을 총격 살해한 아랍 게릴라(일명 검은 구월단), 그 사건 이후 후끈 달아오르며 서점가는 이슬람에 관한 책을 찾는

발길이 부쩍 늘어났고, 이에 편승한 작가들의 서적들이 쏟아져 나오며, 한때 불티나게 팔렸다. 무슨 까닭에서일까? 일시적 현상이었지만 사실 이는, 지적인 학문 탐구의 욕구에서라기보다는 볼수록 자극하는 호기심에서다.

인간 심리는 이중적 모순구조 가져

끔찍한 테러로 희생된 불행한 사태를 두고, 테러가 왜 일어났으며, 그 같은 범주를 태연히 저지를 수도 있는 인간은 도대체 무엇이고, 또 무엇 때문에 이슬람은 갈수록 과격해지며, 폭력으로 얼룩지는 근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의 본질에 접근된 관심보다는, 참혹한 테러가 일어난 현장 화면 영상을 더 보고 싶은 마음에 눈길이 끌리며 특급 첩보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은 극악한 만행을 감행한 테러범들의 소행을 두고, 복잡한 현대사회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불만으로 쌓인 억제된 자기 감정을 배출시키는 일종의 대리만족으로서, 나와 내가 죽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안도감 즉 나와는 상관없는 타인의 비극이 곧 자기 위안이 되며 욕구불만 해소(카타르시스)로 삼는 혼재된 이중적 모순의 인간심리 구조를 엿볼 수 있는, 이 같은 예는 일상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전쟁의 축소판 격인 몸싸움을 하는 거친 운동경기 하며, 동물들이 피흘리며 싸우는

투기도박에 즐겨 빠지면서 흥분하며 좋아하는 것도 그와 비슷한 심리유형이다.

감각적 느낌에 기초한 객관에 끄달리어 즉각적으로 조건반사하듯, 보고 들리는 대상에 빠져드는 객적(객체)인 감정상태를 잡아 길들임을 게을리 하는 불안한 마음도, 맞닥뜨리는 상황과 조건에 따른 환경에 피동적이 되면서 언제든지 충동적이고 돌발적이며, 계획적인 범죄행위를 할 수 있는 위태로움을 내포하고 있다.

무력으로 세력 넓은 이슬람교

아랍권에서 사용하는 기원 연대, 622년은 신의 계시를 설교하는 마호메트가 고대 종교 조로아스터교와 기독교 및 그곳 지주세력에게 밀려 메카를 빠져나온 시점을 무슬림 원년으로 삼으니, 이는 기독교보다 오백년, 불교보다 천년 이상 태동이 늦은 시기다.

메카를 빠져나온 그 후 5년 동안 마호메트와 그의 추종자들은 인근의 아랍족들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는 한편 그들의 무력적 개종 압력에 저항하는 유대인족들을 쳐부수거나 도시에서 추방하면서 점차 세력과 영토가 확장되자 626년 지난날 도망쳐 나온 메카 도시를 정복자가 되어 입성한다.

마호메트는 569년 유복자로 태어나 6세 때 모친마저 세상을 떠나자 조부가 길렀다. 곧 조부가 사망하면서 삼촌 아부라립의 집으로 들어간 마호메트의 성장환경은 마치

유학의 시조, 공자의 어렵고 불행한 젊은 시절 성장배경과도 매우 닮아있다. 25세에 낙타 증개상을 그만 둔 그는 15년 연상인 부유한 과부, 카디자와 혼인하면서 비로소 가난의 굴레를 벗는다.

마호메트가 훗날 이슬람의 창시자(신의 뜻을 전하는 대리인 혹은 예언자)가 된 데는 그가 메카의 힐라 산에서 명상에 잠겨 있는데 천사 가브리엘(신약성서에 등장)이 나타나 할일을 부여하는 동시에 자신이 믿는 신앙에 대한 인정선포를 하였다는 주장을 <코란>에서 하고 있으며, 그 이후 3년을 두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한 신의 직·간접적인 영감(메시지)을 지속적으로 전달받았다고 주장한다.

지난 70~80년대 산유국인 중동의 건설경기 특수로 사우디아라비아에 갔던 우리 근로자들이 그곳에서 보았던 일 중, 가장 놀라운 것은 죄인을 다스리는 형벌방식이었다.

시장이나 공회당, 또는 광장 등지에서 도둑질한 이는 시퍼런 칼날에 손발이 잘리고, 성범죄자는 생식기가 절단되며, 죄질이 무거운 강도는 목을 내리치는 단두형을 집행, 공개처형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아랍권에서 행해지는 형벌방식이다.

휘두르는 칼날에 목이 떨어져 데굴데굴 구르며 일순간 검붉은 피가 솟구치고, 철철 흐르는 비릿한 피냄새, 나뉘는 사람 머리,

목이 달아나버린 참혹한 시신을 보고는 너무도 충격적인 그 광경에 한동안 악몽을 꾸며, 귀국을 하고서도 떠오르는 섬뜩한 기억을 지우는데 애를 먹었다는 얘기를 수차례 들었다.

살상행위는 절대 용인 안돼

그런 가운데 몇 년 전 리아드에서 강도 12명을 공개 처형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들끓고 있다는 소식이 외신을 타고 전한다. 잔혹한 형벌방식을 비롯, 아랍권의 관행과 인습이 지배하는 인간정서를 해치는 반문명적 여러 가지 제도와 관습을 두고, 일부 사람들, 특히 중동을 여행하며 지역 문화를 공부한 지식층, 학자들의 시각은 상당히 편향적이다. 이유인 즉 “근본적으로 종교며 역사와 풍토가 다른 문화차이인 만큼 서구식 내지는 우리식 잣대로 재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이 말대로라면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최악의 인권말살조차도 그쪽 체제가 그렇고 길들여진 문화관습이 대한민국과 다르다며 그것이 용인되고 정당화돼야 하는가 하면, 나아가 아무 소용없는 국제인권기구며 인권운동단체 따위는 즉각 해체, 해산되어야 할 노릇이다. 우르드어로 ‘성스럽다 = 사원(술탄)’이란 뜻의 합성어로 국명을 쓰는 나라, 파키스탄이다.

그런데 1972년 1월 벵골지역 부녀자들이 성스럽다는 자부심을 가진 이 회교국가 서파키스탄 군인들에게 20여만명이 능욕을 당한다. 능욕을 당한 여인들은 이슬람의 율법과 풍습에 따라 남편 곁을 떠나고 집을 등지며, 불행하고 고단한 길을 떠나야 했다.

하지만 유독 남자에게만 너그러운(?) 회교율법은 성폭행범으로 체포하여 단 1명도 생식기를 자르는 일은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도 종교와 문화 차이라며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다.

단순 비교할 수만은 없는 가혹한 사막 문화 차이라는 점에서 우열로 다를 문제가 아닌 한, 비정한 인습, 관습이 풍토가 되어 뿌리내린 참혹한 인신학대와 가벼이 여기는 살상행태는 종교며 역사, 풍속 등등을 말하고 따지기 전에 인간정서에 크게 벗어 나는 비이성적인 행위이다.



고통에 찌든 중생의 몸과 마음 어루만지다

보살은 보리살타의 준말이다. '깨달음을 구해서 수도하는 중생', '구도자', '지혜를 가진 자' 등으로 풀이된다. 보살은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머물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일체 중생을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하도록 제도하기 위해서이다.

보살은 수행의 단계에 따라 계위(階位)가 주어진다. 초발심(初發心)은 최초 단계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행도(行道)는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수행하는 단계이다. 불퇴전(不退轉) 단계는 수행으로 도달한 경지에서 물러나거나 수행을 중지하는 일이 없음을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생보처(一生補處) 단계로 한 생이 끝나면 다음에는 부처가 되는 것을 말한다.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가 쌓은 선근공덕(善根功德)을 남을 위하여 헌신하는, 불교에서는 부처님 다음으로 소중한 존재이다.



월광보살(月光菩薩)

범어로는 찬드라프라바(Candra-prabha)이며 전달라발라바(戰達羅鉢羅婆)라 음역한다. 월광변조(月光遍照), 월정(月淨)이라 번역한다. 이 월광보살에 대해서는 네 가지 설이 있다.

①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거세에 보살행을 닦으면서 국왕의 몸으로 나투었을 때의 이름이다. 이 왕은 대위덕을 갖추었고 나중에 노도차바라문에게 머리를 시여하여 보시바라밀을 성취하고는 월광보살이라 불리게 되었다.

② 약사여래의 협시로서 오른쪽에 위치하며 왼쪽의 일광보살과 대칭되는 보살이다. <약사여래본원공덕경>에 의거하면 이

보살은 일광보살과 함께 무량무수의 보살 가운데 상수가 되고 점차 부처가 되었다고 한다. 이 보살은 우유빛 몸을 드러내고 거위자리를 밟으며 손에는 월륜(月輪)을 쥐고 있다.

③ 진언밀교에는 2종의 월광보살이 있다. 하나는 금강계만다라 현겁 16존의 한 분으로 달처럼 맑고 시원한 진리의 법락(法樂)을 베풀어 준다고 한다. 다른 하나는 태장계만다라 문수원(文殊院) 가운데 한 분이다. 금강계에서는 월광보살이 미세회 등 제2원의 서쪽에 있고 밀호는 청량금강(淸涼金剛), 삼매야형은 반달형이다. 태장계에서는 문수원 중 묘길상의 오른쪽 묘음보살과 무구정광보살 중간에 있다. 밀호는 위덕금강(威德金剛), 삼매야형은 청련화를 반달 위에 둔다.

④ 공자의 제자로 공자보다 앞서 세상을 떠난 안희의 전신이라고 한다. 일본의 묘락대사의 <지관보행전홍결(止觀輔行傳弘決)> 제6권에 ‘청정법행경에 이르기를 월광보살은 안희라 칭하고 광정보살(光淨菩薩)은 중니(仲尼)라 칭하며 가섭보살은 노자라 칭한다고 했는데 이는 천축에서 진단(震旦)을 가리킨 것’이라 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노자는 가섭보살이요, 공자는 광정보살이며, 안희는 월광보살이라는 뜻이다. 이처럼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월광보살은 약사불의 협사이듯 중생들의 몸과 마음의 질병을 다스리고 있다.



일광보살(日光菩薩)

범어로는 수르야프라마(Srya-prabha)이며, 일광변조보살(日光遍照菩薩). 일요보살(日曜菩薩)이라고도 한다. 약사불의 두 협시보살 가운데 한 분으로 태양처럼 빛나는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중생을 교화하는 보살이요, 찬란한 원광으로 중생들의 온갖 재앙을 두루 비취 소멸시키는 보살이다.

약사불의 협시로 모실 경우 몸은 적홍색이고 왼손바닥에는 태양을 올려놓고 오른손에 넝쿨로 된 붉은색 꽃을 들고 있는 형상으로 한다. 그러나 약사불의 협시가 아닌 일광보살 독자적인 형태일 경우는 다르다. <약사본원경>이나 <관정경>과는 달리 <대일경>에 근거를 둔 까닭이다.

범어로는 수르야프라바사나(Srya-prabhasana)이며 일광명보살이라고도 한다. 현도태장계만다라 제개장원 9존 중 가장 서쪽, 즉 가장 아래쪽에 안주하는 보살이다. 밀호는 위덕금강(威德金剛)이고 종자는 카(Ka)며 삼매야형은 붉은 보배다.

형상은 온몸이 살색이며 오른손은 팔을 펴서 손바닥을 세워 몸쪽으로 향하게 하되 중지과 무명지와 소지를 약간 구부린다. 왼손은 주먹을 약하게 쥐어 배꼽 위치에 두되 보주를 올려 놓은 연꽃을 잡는다. 연꽃의 봉오리 즉 보주가 있는 쪽은 왼쪽어깨 위로 걸친다. 대체로 이 보살은 <대일경>과 <대일경소>에서 얘기하고 있으며 태장도상(胎藏圖像) 등에도 나온다. <현법사의게> 제2와 <청룡사의게> 중권에서도 이 보살을 지장원 9존 중 가장 서쪽에 두고 제개장원 가장 서쪽에는 제개장보살을 안치하여 현도만다라와 그 앞은 자리를 달리한다.

일광보살은 장애를 제거하는 것으로 본업을 삼는다. 제장(除障)이 본업이라면 현도만다라에서 제개장원에 일광보살을 안치함은 당연한 일이다. 무분별법은 모든 희론을 떠났으며 옹고 그린 두 가지 변(邊)을 여의었다. 일광보살은 무분별의 불이일체법을 실현하는 보살이다. 모든 구름과 안개가 걷히고 나면 태양이 찬란하게 비추듯이 모든 번뇌와 차별이 사라지면 두 변 자체가 있을 수 없다. 일광보살은 월광보살과 함께 해와

달이 온누리를 비추어 만물을 자라게 하고 더위를 식히듯이 중생의 보리를 자라게 하는 보살이다.



지장보살(地藏菩薩)

범어로는 크시티가르바(Ksitigarbha)이며 중국, 한국, 일본 등지에서 관세음보살과 함께 가장 많이 신앙되는 보살이다. 지지(持地), 묘당(妙幢), 무변심(無邊心) 등으로 번역된다. 그러나 보다 널리 알려진 이름으로는 지장보살이다.

도리천에서 석존, 즉 석가모니 부처님의 부축을 받고 매일 새벽 향하사의 선정에 들어 중생의 갖가지 근기를 관찰한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미륵불 사이인 부처님 없는 시

대에 천상, 인간, 아수라, 아귀, 축생, 지옥의 중생들을 교화하는 대비보살이다. 특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짐짓 지옥에 들어가 죄짓는 중생들을 위무하고 교화해 제도하는 위대한 ‘지옥세계의 부처님’으로 신앙된다.

한국불교 사원에서 조석으로 올리는 예불문에도 사대보살의 한 분으로서 대원본존(大願本尊)을 그 공능으로 삼는데, 이는 이 보살이 세운 서원이 다른 어떠한 보살의 서원보다도 장하고 근원적이기 때문이다.

〈지장보살본원경〉에는 지장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한 서약의 내용이 있다. “지옥이 텅 비지 않는다면 결코 성불을 서두르지 않겠나이다. 그리하여 육도의 중생이 다 제도되면 깨달음을 이루리다.” 지장이란 이름은 지옥에 스며들어가 지옥의 중생을 교화하는 부처님이라는 의미 외에도 안

인부동(安忍不動)하기가 대지와 같고 생각하는 바 치밀하기가 비장(秘藏)과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다.

밀교에서는 밀호를 비원금강(悲願金剛) 또는 여원(與願)금강이라 하며 금강계만다라에서는 남방 보생여래(寶生如來)의 당(幢)보살로 시현하고, 태장계만다라에서는 지장왕 가운데 9존의 중존지장살타(中尊地藏薩타)가 된다. 그 모습은 천관(天冠)을 쓰고 왼손에는 연화를, 바른손에는 보주를 들었으며, 후세에 이르러 석장을 든 사문의 모습이라든가 동자를 안은 지장의 모습이 대두되게 된다. 또는 육도를 맡아 교화하는 육존지장의 모습, 전쟁을 갈무리하는 승군지장(勝軍地藏)상도 출현한다. 좌우보처로는 도명존자(道明尊者)와 무독귀왕(無毒鬼王)이 있고 이 보살이 봉안된 전각을 지장전 또는 명부전, 시왕전 등으로 부르고 있다.





국보 제49호인 대웅전

4대 총림 중의 한 곳 충남 예산 덕숭산 수덕사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덕숭산에 있는 수덕사는 백제 위덕왕 때 고승 지명대사가 세운 절이다. 대웅전 뒤편을 병풍처럼 둘러싼 덕숭산은 호서(湖西)의 금강산이라고도 불리는데, 여러 가지 형상을 지닌 기암들이 절묘한 풍경을 자아내는 명산이다. 수덕사 대웅전은 국보 제49호로 지정된 국내 현존하는 최고(最古) 건축물로 1308년에 지어졌다. 대웅전 뒤에는 검은 바위덩어리가 수덕사를 지키고 있다. 수덕사에서 정혜사까지는 1080돌계단이 있다. 덕숭총림 2대 방장이셨던 벽초스님께서 만든 이 계단을 오르고 있으면 일체의 머무름도, 일체의 걸림도 없는 무아의 지경으로 빠져드는 것 같다.

수덕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의 본사이다. 창건이나 그 이후 역사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어 절의 연혁을 알 수 없지만 전해지는 설화가 있다.

덕산 황토지에 따르면 아주 먼 옛날 홍주 마을에 사는 수덕도령이 있었다. 수덕도령은 훌륭한 가문의 자제였는데,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먼 밭치에서 한 남자를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된다. 곧 상사병에 걸린 수덕도령은 수소문 끝에, 그 남자는 건너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는 덕송남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여러 번 청혼을 했으나 거절당한다.

수덕도령의 끈질긴 청혼으로 마침내 덕

송남자는 자기 집 근처에 절을 하나 지어 줄 것을 조건으로 청혼을 허락한다. 수덕도령은 기쁜 마음으로 절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탐욕스러운 마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절을 완성하는 순간 불이 나서 소실되었다. 다시 목욕재개하고 예배 후 절을 지었으나 이따금 떠오르는 남자의 생각 때문에 다시 불이 일어 또 완성하지 못했다.

세 번째는 오로지 부처님만 생각하며 절을 지었다. 절은 완공되었고 남자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으나 수덕도령이 손끝 하나 건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참지 못한 수덕도령이 덕송남자를 강제로 끌어안는 순간 천둥 번개가 몰아치더



덕송총림 수덕사 전경

니 낭자는 사라지고 낭자의 한쪽 버선만이 쥐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바위로 변했고, 옆에는 버선 모양의 하얀 꽃이 피었다. 이 꽃을 버선꽃이라 한다. 낭자는 관음 보살의 화신이었다. 이에 낭자의 이름을 따 산 이름을 덕숭산이라 했고, 절은 수덕도령의 이름을 따서 수덕사라고 했다고 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수덕사는 백제말 승제법사가 창건하고 고려 공민왕 때 나옹 선사가 중수했다고 한다. 일설에는 백제 위덕왕(554-597년) 때 지명법사(知命法師)가 창건하고 원효대사가 중수했다는 말도 전한다. 조선시대 말에 경허(鏡虛)선사가 선종을 일으킨 뒤 1898년(고종 35) 그의 제자인 만공(滿空)대사가 중창했다고 한다. 수덕사에는 우리나라 4대 총림의 하나인 덕숭총림

(德崇叢林)이 있다.

수덕사의 가장 큰 보물은 대웅전이다. 국보 제49호인 대웅전은 고려 충렬왕 34년(1308)에 세워진 목조 건축물로 우리나라 고건축물의 기준이 된다. 고려시대에 건축되었지만 특이하게 백제식 곡선을 보이는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이기도 하다. 정면 3칸 측면 4칸으로 맞배지붕을 하고 있으며 기둥의 중간 부분이 부풀려진 배흘림기둥 위에만 공포를 올린 주심포 양식이다. 건축연도가 확실하고 뛰어난 조형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대웅전 안에는 중앙의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약사불, 아미타불의 삼세불이 모셔져 있다. 이 목조삼세불 좌상(보물 제1381호)은 만공대사가 전라북도 남원에 있는 만행산 귀정사(歸淨寺)로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인 대웅전의 측면



수덕사 일주문

터 옮겨온 것이라고 한다.

대웅전 앞마당에는 여래탑이라고도 불리는 삼층석탑(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03호)이 있다. 삼층 석탑은 신라 문무왕 5년에 건립되어 원효대사가 중수하였다고 전해진다. 통일신라의 양식을 지닌 고려 초기 석탑이다. 조인정사 앞에 세워져 있는 7층 석탑은 1931년에 만공선사가 건립했다고 한다.

또 보물로는 노사나불괘불탱(蘆舍那佛掛佛幀, 보물 제1263호)이 있다. 노사나불괘불탱은 1673년(현종 14)에 제작된 괘불로서 노사나불을 단독으로 나타낸 독특한 형식의 그림이다. 적색과 녹색을 주로 사용하고 공간을 오색의 광선으로 처리하여 화려하고 환상적인 느낌을 준다. 근역성보관도 자랑거리 중 하나이다. 이곳에는 우리나라 불교문화재 4000여 점이 소장, 전시되어 있는데, 백제로부터 시작된 이 지역 불교의 원류와 시대별 변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또 공예, 전적, 복장물, 고승 유물 등을 볼 수 있다.

산내암자로는 정혜사를 비롯하여 견성암, 금선대, 환화대 등이 있다. 정혜사에는 비구선원인 능인선원(能仁禪院)이 있으며, 견성암에는 비구니 선원인 제일선원(第一禪院)이 있다.

일주문 근처에는 선미술관과 수덕여관이 있다. 수덕여관은 세계적인 동양화가인 고암 이응노 화백 부부가 한동안 머물던 곳으로 지금은 템플스테이 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여관 앞 납작한 바위에는 이응노 화백이 그린 암각화가 있다. 수덕여관 아래에 있는 선미술관 역시 이응노 화백과 인연이 깊다.



찾아가는 길



경부고속도로를 타고가다 대전 회덕분기점에서 호남고속도로로 갈아탄다. 유성분기점에서 당진영덕고속도로로 옮긴 뒤 당진방면으로 가다 예산 수덕사나들목에서 내려 임성교차로를 거쳐 수덕사로 가면 된다.

아난 존자 경전 결집 이끌어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득도 후 열 명의 뛰어난 제자를 거두어 가르치셨습니다. 이 열 분의 제자들을 각기 자신만의 특기와 개성으로 부처님의 다양한 덕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열 분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새겨봅니다.



가전연

가전연은 중인도의 서쪽 변방에 위치하고 있는 옷제니 출신이다. 불서의 기록에 따르면, 옷제니는 석가모니가 한 번도 발을 들어 놓지 않았던 도성의 하나였다.

옷제니의 왕은 석가모니와 불교 교단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가능하면 석가모니를 자기 나라로 초청하고 싶어 했다.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그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그 개략만이라도 알고 싶어 했다. 그래서 왕은 일곱 명의 사신들을 사위성의 기원정사로 파견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가전연이다. 그는 아버지가 왕을 보필하는 스승으로 있었기 때문에 일곱 명 속에 끼어들어 갈 수 있었다.

가전연은 석가모니를 만나자마자 그대로 출가하여 불제자가 되었다. 가전연은 수행한 후 귀국하여 왕을 불교에 귀의케 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출가시켰다. 그의 교화활동을 나타내주는 이야기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소오나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고향인 옷제니로 돌아온 가전연의 시자(=비서) 노릇을 하고 있었다. 아직 비구는 아니었고 재속의 신자였다. 그러나 소오나는 가전연 존자의 시중을 들고 있는 동안에 자기 자신도 출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스승에게 그와 같이 요청을 한다. 스승은 최초에는 그에게 단념하라고 권했지만, 그의 열의를

간파하고서 결국에는 승락을 했다.

그런데 출가에는 수계의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계의식을 할 때 열 사람의 비구가 입회하도록 정해져 있다. 옷제니는 변방 땅이기 때문에 열 명의 비구를 쉽사리 모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소오나의 출가의 염원이 이루어진 것은, 그로부터 3년 후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후 소오나는 석가모니를 배알하고 싶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스승인 가전연 존자와 상담을 했는데, 스승도 그 일을 추진해 주었다. 이리하여 소오나는 머나먼 사위성 기원정사까지, 석가모니를 찾아 여행길을 떠난다.



가전연

그가 기원정사에 도착했을 때 석가모니는 먼 길을 찾아온 비구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셨다. 이야기하는 중에, 옷제니는 변지라서 비구를 모으기가 무척 힘들어 출가가 늦어졌다는 까닭을 말씀드리자, 석가모니는 무척 딱하게 여기시고 동정의 뜻을 표했다고 한다. 그래서 출가의 작법에 다음과 같은 특례 조항을 설정했던 것이다. 그것은 ‘변지에서는 다섯 명의 비구로써 구족계를 주어도 좋다’는 조항이었다. 구족계란 출가자를 위한 계율이다.

라후라

라후라의 출생에 대해서 불전 속에서는 약간 이상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 대목이 있다. 그것은 라후라가 세존이 성도를 하던 날 밤에 태어났다는 설과, 세존이 출가하기 전에 태어났다는 설이다. 물론 일반적인 설은 세존이 출가하기 전에 태어났다는 설이다.

앞의 설에 의하면, 석가모니의 부인인 아쇼다라는 불륜의 자식을 낳았다고 하여 친척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그녀는, 큰 돌 위에 라후라를 얹어 놓고 “이 애가 내 남편의 자식이라면 이 돌은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돌을 못에 던졌다. 분명히 돌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리하여 그녀의 정절이 입증되었던 것이다.

기뻐한 정반왕은 연못 속으로 들어가서 라후라를 안아 올렸다. 그러자 라후라가 없

어저 가벼워진 돌이, 곧 물속으로 가라앉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라후라’라는 이름은, 그가 태어난 날 밤에 월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산스크리트어로 ‘월식’을 ‘라후라’라고 한다.)

후설에 의하면, 아들의 탄생 소식을 들은 세존은 혼잣말처럼 “장애가 생겼구나. 계박이 생겼구나”라고 말했다 한다. 이미 일찍부터 출가의 뜻을 품고 있던 석가모니는 후계자를 얻음으로써, 출가의 조건은 갖추어졌지만, 반면 자식에 대한 애정 때문에 출가의 결심이 무디어질 것을 걱정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출가하는데 ‘장애’와 ‘계박(업매임)’이 생겼다고 말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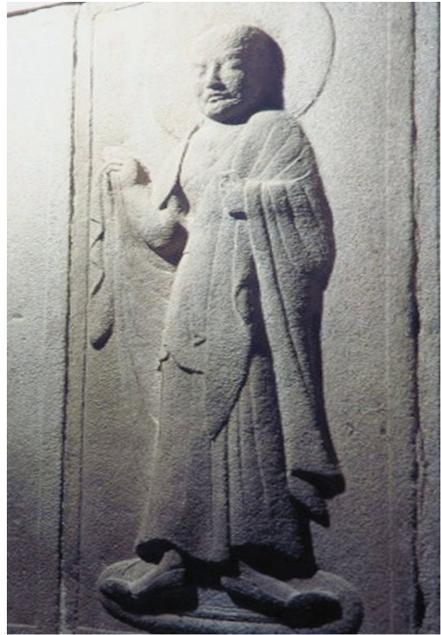
그리고 이 ‘장애’라는 말이 원어로 ‘라후라’라고 한다.(월식은 ‘빛을 방해한다’는 의미에서 ‘라후라’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후라(장애)가 생겼다”는 세존의 중얼거림이, 그대로 ‘라후라’라는 이름이 되었다.

라후라의 출가

귀향을 하신 석가모니는, 가비라성의 거리로 탁발을 다니셨다. 단 한 번도 궁전으로는 찾아가지 않으셨다. 참다못한 정반왕은 사자를 보내 이렇게 전했다.

“우리 왕가의 부로 말하면, 수천 명의 출가자에게 공양하는 것도 쉬운 일이다. 아들이여, 제발 비렁뱅이 짓만은 그만 뉘시오!”

그러나 석가모니는 “이것은 출가자의 바른



라후라

생활 방법입니다”라고 한마디로 거절했다.

탁발하며 돌아다니는 석가모니를 가리키며, 아쇼다리는 아들인 라후라에게 이렇게 들려 주었다. “저분이 너의 아버지란다. 가서 재산을 받아 오는 거다. 자식은 누구나 자기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나눠 받을 권리가 있는 거니까.” 라후라는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부친인 석가모니에게로 달려갔다. “아버지, 내게 재산을 주십시오.” 그는 어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반복한다.

석가모니는 아무 대답도 없이 교외의 니그로오다원으로 돌아갔다. 석가모니는 고제자인 사리불을 불러서 라후라의 문제를 상의했다. 그리고 사리불에게 부탁하여 아

들인 라후라를 출가시켰다. 또 라후라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한 사람의 비구로는 취급할 수 없으므로, 그의 지도를 목련에게 맡겼다.

아난

아난 존자는 석가족 출신으로서 세존의 사촌 아우라고 한다. 불전에 그 이름이 나온 횃수는 아마 십대 제자들 가운데 이 아난 존자가 가장 많을 것이다. 그는 석가모니의 시자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석가모니가 누군가에게 시자 노릇을 맡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장로들이 차례차례 그 역을 맡고 싶다고 제의했다. 하지만 석가모니께서는 모두 나이를 먹어 체력도 쇠약해졌다는 이유로 그들의 제안을 물리쳤다. 석가모니가 바라던 것은 아난이었다. 하지만 정작 제안을 받은 아난이 주저했다. 너무 무거운 임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렇지만 아난은 △ 석존을 위해서만 들어진 의복은 받지 않는다, △ 석존을 위한 식사는 받지 않는다, △ 비시에 석존과 만나지 않는다 등 세 가지의 조건을 제시하고 세존의 제안을 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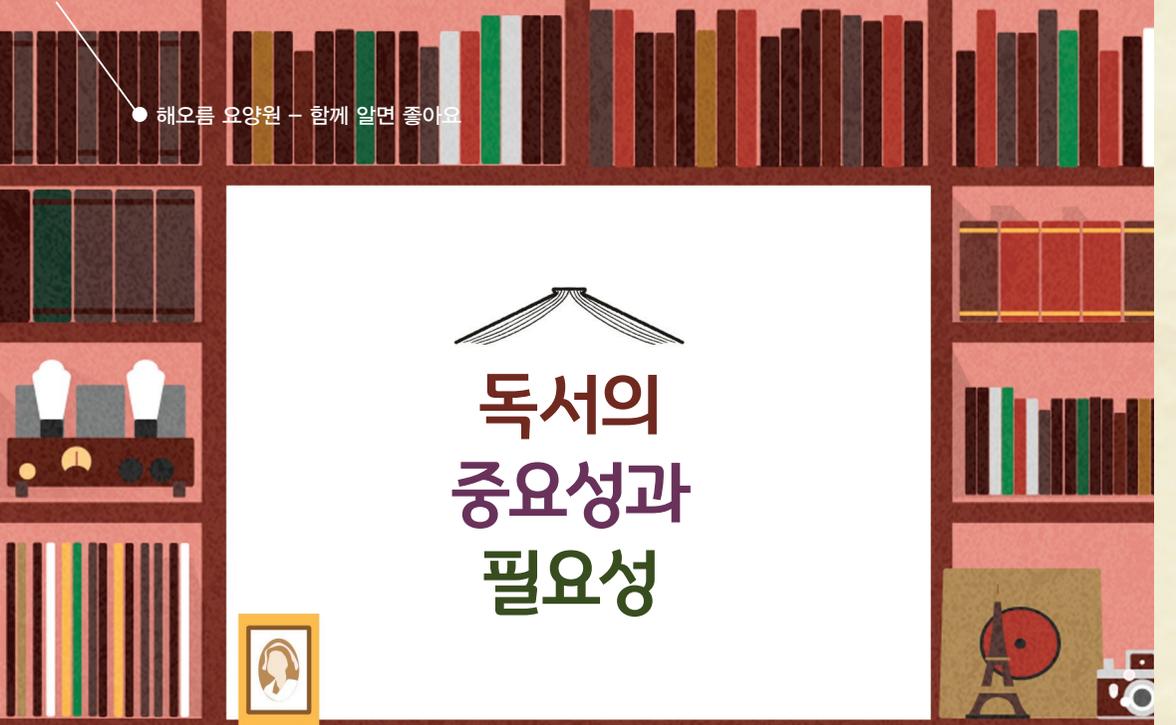
석가모니는 교단의 주재자이시다. 따라서 재가 신자가 석가모니를 초대해서 석가모니를 특별히 식사라도 대접한다거나 특별히 좋은 옷을 공양하는 일이 있는 것이다.



아난

그때 시자에게도 나누어 줄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양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자라도 어디까지나 모두 똑같은 불제자이기 때문에 특별 취급을 받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었다. 비시에 석존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언제든지 석존과 만날 수 있다는 특권을, 자신의 수행상 편의 때문에 사용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 아난의 자계였다.

아난 존자는 25년 동안의 시자 노릇을 한 자로서의 체험에 의해 결집을 시종 이끌며, 경전을 완성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오늘날 우리들이 원시 불교의 성전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은 이 아난 존자의 힘이 큰 것이다.



독서의 중요성과 필요성

독서는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하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지적, 정의적, 성장의 도구이며 인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앎과 깨달음, 감동을 얻는 핵심적 방편이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은 독서를 통해 서로의 지식과 정보, 그리고 정서를 교환하는 매개로써,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과 동시에 문화와 문명을 이어나가는 원동력이다.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도 독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창조적 과정이며 학습의 도구로서 모든 교과 교육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독서는 가장 좋은 교육의 수단인 동시에 교육의 목표이다. 이처럼 독서는 지능(IQ)을 높이고 감성지수(EQ)도 개발될 수 있고, 기계문명이 지배하는 비인간화된 시대에서 도덕지수(MQ)도 길러질 수 있으며, 미래 사회의 교육에서 핵심이 될 창조지수(CQ)도 신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독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새롭게 하고 독서의 중요성의 커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독서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를 몇 가지 적어 본다.



01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

책을 읽는 법을 배워야 하는 시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아이는 그림책을 들여다보는 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생생한 그림이 실린 책을 물어뜯고, 옷 그림이 그려진 책을 쥐고 잠자리에 들기도 한다.

이처럼 독서 습관을 들이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책을 골라내는 노력들을 통해, 슬픔과 기쁨, 혼란과 외로움 같은 감정들은 누구나 갖고 있기 마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역사 소설을 읽을 때 당대의 삶을 몸소 체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눈을 보고, 또 글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그 글에 공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관습과 문화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신을 신고 걸을 수 있듯이, 다른 관점에서 쓰인 글을 읽으면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02

어휘력이 풍부해진다

만일 낱말과 관련해서 그 사람의 독서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다면, 그가 알고 있는 낱말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면 간단히 해결된다. 이 둘은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어떤 책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 뜻을 알고 있어야 하는 낱말도 있지만 독서를 통해서 새로운 낱말을 배우기도 한다.

알고 있는 낱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독서는 쉬워진다. 새로운 낱말의 주변을 이미 알고 있는 낱말들이 둘러싸고 있는 경우, 문맥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기도 하는데, 이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03

평생 동안 유지될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다

습관이란 정말 놀라운 것이다. 피아노를 꾸준히 치면 시간이 흐를수록 실력이 나아지는 것처럼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력은 더욱더 향상되고 재미 또한 가중된다. 이렇듯 독서에 있어서도 연습은 독서력을 좀 더 완벽하게 다듬어 준다.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독서에 좀 더 익숙해지고, 기쁨도 커지고, 기쁨이 더해질수록 좀 더 많은 책을 읽고 싶어지며, 결국 혼자서 책을 읽는 행위를 통해 내용을 쉽게 빨리 이해하게 되고, 이것은 읽는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면서 독서력을 성장시켜 줄 것이다.



04

상상력이 커진다

아이들이 사실을 알기 위해 백과사전을 펼쳐 보는 것처럼, 우리들은 진실을 찾기 위해 이야기 속으로 뛰어든다. 이처럼 사람들을 이야기 속으로 뛰어들게 만드는 힘은 바로 무한한 상상력이다.

상상력이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머리 속에 떠올리는 힘이고 누군가 처음에 상상하지 않았다면 컴퓨터나 복잡한 발명품들은 결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독서는 이제껏 한 번도 보지 못한 장면들을 마음 속에 떠올리게 해주는 능력을 길러준다.



05

독립심이 강해진다

우리들은 항상 즐겁게 지내기를 바란다. 주위에 친구들이 있어야 하고, 텔레비전을 봐야 하고, 늘 무슨 일에 매달려야 한다. 그러나 혼자 책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스스로도 충분히 즐겁게 지낼 수 있다. 그들은 혼자서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서, 자유에 대한 느낌을 강하게 느끼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독서이다. 실제로 남북전쟁 이전에, 독서가 안겨 주는 힘을 두려워한 노예 소유주들은 노예들이 글을 배우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나중에 많은 흑인 지도자들이 은밀히 글을 배운 다음 주인의 눈을 피해 다른 노예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듯이 독서가 자유를 획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른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부모가 아이들이 슬기롭게 세상을 헤쳐 나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혼자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스스로 사실들을 발견하고 즐기면서 새로운 지평선을 열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독서는 독립심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06

세계가 넓어진다

책 속으로 들어가면 현실과는 달리 여러 가지 삶을 경험할 수 있다. 책은 현실의 삶을 대신해 주지는 않지만, 어떤 경험이 더 가치 있는가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역사 교과서는 사실만을 전달하지만, 역사 이야기는 마치 그 시대를 직접 체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우리들은 독서를 통해 다른 시간과 장소로 이동할 수 있다. 마치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북아메리카 농장에서의 개척생활이 어떤 것인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처럼 독서를 통해 미래로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멀리 떨어진 별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기도 한다.

이처럼 책은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또한 현실에서 가능한 선택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준다.

법왕사 소식

정유년 백중 및 우란분절 천도법회 회향



법왕사에서서는 지난 7월 19일 입재한 백중(우란분절) 영가천도 49재를 9월 5일 회향하였습니다. 우란분절은 부처님의 제자인 목련존자가 지옥도에 떨어진 어머니를 천도하기 위해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리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공양하여 어머니를 구했다는 유래를 가진 불교의 중요한 명절 가운데 하나로 불자들은 기도 기간 중 선망부모와 조상 및 수자령가들을 천도, 극락왕생을 기원하였습니다. 또한 49재 기간 중에는 지장보살 사불과 사경법회도 동시에 열어서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였습니다.

운불련 정기법회 봉행



대구 운불련 정기법회가 9월 18일부터 사흘간 매일 오후 2시 법왕사 대적광전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법회에는 매일 2백여 불자들이 동참하여 법문과 함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운불련은 매월 법왕사에서 정기법회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제34회 백고좌법회 회향



법왕사 제34회 백고좌대설법회가 지난 9월 20일 회향하였습니다. 이번 백고좌법회는 올들어 두 번째 봉행하는 법회로 6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100일 동안 빠짐없이 계속되었습니다. 회향법회는 조계종 법계위원인 무관스님께서 법문하신 가운데 250여 불자들이 동참하여 그 어떤 법회보다 성황을 이뤘습니다.

봉정암 적멸보궁 순례법회 봉행



법왕사에서서는 오는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설악산 봉정암 적멸보궁 순례법회를 봉행합니다. 봉정암은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도량이기도 합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생전에 한번씩 참배하고 싶어 하는 기도처로 법왕사에서서는 매년 참배하고 있으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예약관계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속히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9월 2일 대적광전 삼신불 이운



법왕사는 지난 9월 2일 주조가 끝난 삼신불을 법왕사 대적광전으로 이운하여 본격적인 봉안불사를 병행합니다. 이어서 10월 3일에는 삼신불을 갖힐 좌대가 도착하고 약 2개월에 걸쳐 개금을 한 다음 오는 12월 18일 봉안 및 점안법회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삼신불 봉안을 앞두고 복장물을 접수하고 있으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2018학년도 수능 100일 관음기도 병행중

법왕사에서 2018학년도 대입 수능에서 고득점을 기원하는 100일 관음기도를 지난 8월 9일 입재하여 11월 17일 수능일에 회향합니다. 올해 수험생을 둔 불자님들은 영험 있는 기도 도량인 법왕사에서 100일 동안 관음기도를 정성껏 올리고 불보살님의 가피로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추석 합동차례 봉행

법왕사에서 오는 10월 4일 추석을 맞이하여 합동차례를 병행합니다. 추석 합동차례는 집에서 차례를 모실 수 없는 불자나 특별히 불교식으로 차례를 올리고 싶어 하는 불자들을 위해 절에서 모든 음식을 마련하여 불교식으로 여법하게 봉행하는 것으로 명절은 물론 조상 영가천도에도 큰 도움이 되니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베트남 불자 모임 법회 봉행



베트남 불자 100여명이 지난 9월 9일부터 10일까지 1박2일 동안 법왕사 본당에서 법회를 갖고 한국불교를 체험했습니다. 베트남 불자들은 앞으로 매월 둘째주 토요일에 정기법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백고좌법회 회향 자비도량참법 기도 회향



법왕사에서 9월 12일 입재하여 18일까지 7일간 병행한 백고좌법회 회향 기념 자비도량참법 7일 기도 영가천도법회를 회향하였습니다.

자비도량참법(慈悲道場懺法)은 법문대로 수행하면 영험을 얻을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멸죄생복(滅罪生福)하며, 망령을 제도(濟度)하면 고륜(苦輪)에서 해탈할 수 있고,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없애면 원수를 멀리할 수 있음을 알려 주는 수행참법(修行懺法)입니다.

새로 오신 법우님

행동진 이종대 이승헌 전재형

법사비 보시하신 분

세광하이테크 이정상·전옥남 관일스님
신장회 일동

사보도움 주신 분

심경스님 1,000부 양지영 2,000부 김정희 2만원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
으로 법왕사보는 거듭 새롭게 꾸며질 것입니다.

공양 올리신 분

◎ 백종 공양미 올리신 분

구재철	이정현	정성욱	신용홍	이세정
조현갑	채상백	염보라	이승엽	최상민
우연희	이정호	정근순	이갈우	조규인
박태현	임창호	허경옥	김선우	강춘희
최말순	이동희	심재용	강추월	신용균
신현욱	김중숙	황인제	조기수	박종한
윤계화	권병기	이우열	심규암	배복선
박홍렬	김주현	임인한	고연숙	

◎ 백종 대중공양 올리신 분

김순권 허대성화

◎ 백종 떡공양 올리신 분

박말순	김기봉	윤상홍	이현주	이종순
주수란	박대희	홍헌덕	김경자	제갈옥
김상한	관윤희	성 윤		

◎ 백종 과일공양 올리신 분

세광하이테크 이정상·전옥남

◎ 공양미 올리신 분

김성도	김주원	김정석	김경란	이상원
심보현	심규웅	성 윤	성 총	박종화
김재훈	사공지웅			

◎ 떡공양 올리신 분

양영갑	장재봉	이세정	양문갑	김봉원
김경란	강신교	정재민	이종량	이용웅
이현자	이승환	이승민	이준우	송영선
이문근	박천규	박청흔	박민서	최라임
김수곤	권상태	또따동(유과)		

◎ 과일공양 올리신 분

박진원 이종량 양문갑

◎ 물품 보시하신 분

손금자(사무용품) 노수정(버섯) 김순태(버섯)

◎ 광목 보시하신 분

이현자

◎ 꽃공양 올리신 분

김정옥

◎ 오백나한 봉안 떡공양 올리신 분

이진희 신정옥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주신 공양물 감사드립니다.

불사 올리신 분

◎ CMS 불사하신 분(8/16~9/15일)

강유주 1만원	류윤희형 1.5만원	오창혁 1만원
강춘희 2만원	박정목 3만원	이숙희 2만원
김관용 5천원	사공관 5만원	이호진 1만원
김명선 2.5만원	서필희 1만원	장명희 5천원
김명숙 1.5만원	성점순 1만원	장미야 4천원
김성미 5천원	손동림 5천원	전성복 1만원
김성자 1만원	손향숙 2만원	전태필 5천원
김수라 3만원	송순분 2만원	전태일 5만원
김연자 1만원	송윤선 7만원	정순희 2만원
김옥자 1만원	신인숙 5천원	정연이 8천원
김정옥 1만원	신정옥 4.5만원	정옥선 1만원
김제순 1만원	심규암 1.8만원	정재순 3만원
김현숙 8천원	심영선 1.5만원	조희선 2만원
나형진 2만원	오재대 1만원	최승임 1만원

최인겸 1만원 한천숙 1만원 황금석 7천원
 최인겸 1만원 홍경숙 1만원 황덕선 5천원
 최진석 5천원 황국희 2.5만원

◎ 삼신불(석가모니불) 올린신 분

정시영 이종환 이기원 이기준 안병목
 이종현 안재찬 박정경 안세현 김태익
 안선희 김성민 김현준 조준형 안현주
 조명기 조수정 청하스님

◎ 삼신불(비로자나불) 올린신 분

박홍렬 손금자 박영균 박초림 최홍규
 이영아 이상태 임상덕 신현채 허상현
 주용숙 허성준 허성빈 강봉호 청하스님
 亡김우곤 亡구태남 亡김준웅

◎ 삼신불(노사나불) 올린신 분

김의목 이선재 청하스님

◎ 오백나한 불사하신 분

31 이재학 34 구재철 55 이재은 57 이강호
 98 김태연 103 양봉률 109 권상태
 111 권마하연 112 조현갑

◎ 부처님 복장물 불사하신 분

이길우 조규인 남현우 남동윤 김환호
 김정옥 이성훈 이정우 이경희 김은지
 이철우 이정호 최라임

◎ 삼신불 좌대 불사하신 분

김기수 신명균 구정대 문지수 이상훈
 이지혜 김상수 황보일 김재순 황보인
 박영은 황보정 김종황 이영란 김근태
 백철기 김호연 염보라 이세정 박종화
 김봉원 전재술 박남남 박해진 박종성
 박대희 정효교 정정교 김현숙 양혜진
 양봉훈 임재형 양지영 박종화 김정호
 이병희 이상호 이철재 염보라 방지현
 유유남 권범수 김임태 김명숙 지장희
 박동근 박남희 박준규 오진환 김정순

오창건 오정임 오민정 김은주 김완주
 차남석 성불행 공세표 황동진 김태혁
 김순자 이승재 윤상흠 김기수 김정선
 정근순 하경순 조영부 김영희 김상한
 김민지 김태영 김우영 최태희 채용자
 최금부 이진욱 이동재 이동주 손영록
 홍분희 신정수 고연숙 이매화 김유리
 김진호 채옥연 김도훈 김민수 윤건불심
 사공순옥 윤법원심 권마하연 이마하심
 일심희 일동 신장희 일동 합창단 일동

◎ 삼신불 개금 불사하신 분

세광하이테크 이정상·전옥남 신명균 김기수
 류윤만 권중훈 김영남 권민지 권태형
 김민제 최지예 고은희 이동학 이승민
 이현자 이승환 송영선 이준우 박이자
 김수곤 이상석 이상조 최남익 권민서
 박해진 백월순 박종성 김분용 조현갑
 정연이 차남석 박홍렬 박종환 김종황
 임창호 김기호 임종욱 김경원 김은서
 김호연 김경희 정영선 변종섭 채금연
 박재홍 황병석 박은영 정해용 이상범
 정은정 안세현 신용홍 장정희 신병기
 신현채 김진옥 신승연 김성덕 신지은
 한재웅 이해영 구실상화 사공순옥
 백대행심 최정심행 여보리자 윤건불심

◎ 삼신불 복장물(금보석함) 불사하신 분

백경원 김하균 김익균 김성호 김연주
 김희정 이병호 최라임

◎ 만불전 1인1원불 봉안하신 분

김진호

◎ 오백나한 100불 1차 봉안하신 분

1 신현중 2 이종환 3 김근태 4 박범국
 5 성진경 6 김이환 7 박동근 8 사공순옥
 9 권오삼 10 민기주 11 권지용 12 권민중
 13 김기덕 14 손혁준 15 이세정 16 김기환
 17 김정호 18 김정숙 19 신나현 20 신명균

- 21 신광욱 22 이현숙 23 김선우 24 김선민
- 25 정현균 26 정효교 27 정청교 28 이영호
- 29 이준목 30 정민지 31 이재학 32 정연호
- 33 오진환 34 구제철 35 백경원 36 사공관
- 37 최남규 38 류윤만 39 배해동 40 박두리
- 41 정성욱 42 서정훈 43 최옥남 44 이정상
- 45 박남희 46 백순복 47 김호연 48 김주양
- 49 박종민 50 고연숙 51 김임태 52 신정욱
- 53 김상수 54 박근범 55 이재은 56 성 윤
- 57 이강호 58 이승민 59 이진희 60 강선옥
- 61 박해진 62 백윤솔 63 정민경 64 최금부
- 65 박준현 66 최용석 67 장우성 68 박종환
- 69 김민정 70 박홍렬 71 김수근 72 삼규암
- 73 이강복 74 최홍규 75 이선자 76 권혁일
- 77 금태운 78 정택상 79 자유스님 80 이진영
- 81 이원석 82 김현석 83 이윤수 84 오견덕화
- 85 여축동 86 이재관 87 백대행심 88 조성훈
- 89 김판돈 90 이사인 91 김태영 92 김동영
- 93 김동수 94 박호윤 95 안영조 96 박재관
- 97 심영호 98 김태현 99 김상희 100 성점화

◎ 일년등 올린 분

487 성석환 786 정대희

◎ 백중 영가등 올린 분(복위자)

이재복 정미화 전수자 전수현

◎ 대적광전 인등 올린 분

29 김은진 30 김정남 59 김주현 69 김영진

- 70 권중훈 71 권민지 72 권태형 263 조영주
- 277 이재현 413 김나영

◎ 본당 인등 올린 분

352 신정순

왕생극락하옵소서

- ◆ 난최영재 영가의 기제사가 9월 8일에 있었습니다.
 - ◆ 난류홍렬 영가의 막재가 9월 11일에 있었습니다.
 - ◆ 난박영규 영가의 막재가 9월 12일에 있었습니다.
 - ◆ 난하종숙 영가의 기제사가 9월 14일에 있었습니다.
 - ◆ 난손혜진 영가의 초재가 9월 17일에 있었습니다.
 - ◆ 난김창순 영가의 기제사가 9월 19일에 있었습니다.
 - ◆ 난장해원 영가의 막재가 9월 21일에 있었습니다.
 - ◆ 난손계출 영가의 기제사가 9월 22일에 있었습니다.
 - ◆ 난김영선 영가의 기제사가 9월 24일에 있었습니다.
 - ◆ 난곽순생 영가의 기제사가 9월 25일에 있었습니다.
 - ◆ 난안덕용 영가의 막재가 9월 25일에 있었습니다.
-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 ♡ 박종윤, 신인숙 법우님의 아들 박성호님의 결혼식이 9월 9일 대구 프라임캐슬 테라하우스홀에서 있었습니다.
- ♡ 권동우 법우님의 아들 권기성님의 결혼식이 9월 17일 휴먼락메르시앙웨딩 글로리홀에서 있었습니다.



정기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월간 법왕사보 '맑고 향기로운 사람들'에서는 불자 여러분의 정기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1년 정기구독료는 2만원입니다. 구독 신청은 전화나 팩스, 직접 방문 등 어떤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시는 구독료는 사보 제작은 물론 불자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법보시에 활용되는 등 큰 공덕을 쌓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법왕사 종무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53-766-3747 팩스 | 053-767-6095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법왕사내 '맑고 향기로운 사람들' 편집실

해오름 요양원 9월 소식



오카리나공연

어르신들에게 아름다운 오카리나 소리를 들려드리려 봉사자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르신들은 그에 보답하듯 생활실에 둘러앉아 박수쳐 가며 아름다운 오카리나 연주를 감상하셨습니다. 흥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어깨춤까지 덩실덩실 추시며 즐거워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카리나 봉사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일여중 네일 봉사

예쁜 경일여중 학생들이 방과 후에 손맛사지와 네일아트 봉사를 하러 본 요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소 서툴기는 하여도 어르신들은 마냥 좋아하시고 얼굴엔 미소가 가득하셨습니다. 학생들 덕분에 오늘 우리 어르신들 손톱에 무지개가 뿔네요. 각 방마다 돌며 와상 어르신들까지도 손맛사지를 해드린다고 고생 많은 학생들 고마워요. 다음에도 또 놀러오세요.~



무하스님의 웃음치료

2주에 한 번씩 찾아오셔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웃음을 한가득 주고 가시는 무하스님이 오시는 날.~ 미리 자리를 잡고 스님을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은 오늘도 기대에 가득 찬 눈빛으로 스님을 기다리셨습니다. 특히 얼굴 분장은 스님의 트레이드마크와도 같습니다. 어찌 보면 각설이 같기도 하지만 어르신들은 그런 재미난 분장 역시 좋아하십니다. 오늘도 큰 웃음주신 무하스님 감사합니다.~



건강장해 예방교육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장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다녀왔습니다. 치매 돌봄의 첫걸음, 스트레스 제로 프로그램, 감염성 질환 예방, 스트레칭 등 전문 강사가 4명이 열강을 해 주셔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기관리에 힘쓰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즐거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 개인 정기봉사자 | 안수정, 이경희, 손미령, 이수정, 배영숙(웃음치료), 윤수빈, 강진주, 윤성덕, 문자영(이미용)

| 단체 정기봉사자 | 수성시니어공연단(공연활동), 최단장공연단(공연활동), 써포터즈(아외나들이), 친한친구(놀이치료), 행복한교육이야기(놀이치료), 어린왕자(놀이치료), 그루터기(놀이치료), 오카리나공연단(공연활동), 하모니카공연단(공연활동)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8월)

◎ 수입내역

CMS(자동이체) 후원하신 분

강병철 1만원	김수라 1만원	도순자 1만원
강선옥 5만원	김수자 1만원	도화순 5천원
강소남 5천원	김숙희 2만원	독고보경 1만원
강영도 2만원	김순덕 1만원	류윤만 1만원
고연숙 1만원	김순연 5천원	류훈자(지일) 5천원
고재옥 2만원	김순태 1만원	문성섭 1만원
구정대 2만원	김양순 1만원	박경란 1만원
권순득 1만원	김영호 1만원	박경자 5천원
권순미 1만원	김영희 5천원	박귀분 1만원
권순영 1만원	김옥희 5천원	박남희 6만원
권순칠 1만원	김외환 1만원	박대희 5천원
권영철 5천원	김용태 1만원	박동규 5천원
권오관 2만원	김우영 1만원	박상용 5천원
권오국 1만원	김영형 3만원	박성숙 5천원
권춘자 3만원	김의목 1만원	박성용 5천원
금명섭 5천원	김정규 5천원	박성은 5천원
김경자 1만원	김정숙 5천원	박성후 2만원
김경호 1만원	김정숙 5천원	박수진 1만원
김기덕 2만원	김정순 3만원	박순남 5천원
김기수 2만원	김정임 2만원	박순영 5천원
김대현 5천원	김정자 5천원	박원태 1.5만원
김만기 5천원	김주현 1만원	박인철 1만원
김명숙 1만원	김진성 1만원	박정묵 1만원
김명옥 1만원	김진현 1만원	박종규 1만원
김미자 1만원	김진현 1만원	박종환 1만원
김미정 1만원	김진현 2만원	박치민 5천원
김미희 1만원	김진현 5천원	박희조 5천원
김민주 1만원	김진현 5만원	반룡사 1만원
김봉숙 5천원	남기웅 1만원	방지현 2만원
김성의 1만원	노귀자 5천원	배수현 2만원
김수곤 5천원	노수정 1만원	배하수 1만원

사공관 2만원	이명숙 1만원	장우성 1만원
서동남 1만원	이명희 1만원	장재혁 5천원
서찬수 1만원	이병노 1만원	장찬규 5천원
서치경 1만원	이병희 1만원	정경석 2만원
성인자 1만원	이복희 1만원	정경숙 1만원
손수연 1만원	이상혁 1만원	정명선 2만원
송민경 1만원	이석규 5만원	정무시 1만원
송정숙 5천원	이성자 1만원	정미화 1만원
시명숙 1만원	이성환 5천원	정민경 1만원
신구자 5천원	이승환 5천원	정숙자 1만원
신돈식 1만원	이옥자 1만원	정순옥 5천원
신임선 5천원	이용옥 1만원	정시영 1만원
신충호 5천원	이유태 1만원	정연이 5천원
신홍준 1만원	이인순 5천원	정옥선 1만원
신화식 1만원	이임숙 2만원	정옥수 5천원
심규암 5천원	이재봉 5천원	정인순 5천원
안경순 1만원	이전희 5천원	정태교 5천원
안명희 1만원	이점예 2만원	정혜숙 1만원
안인술 5천원	이정연 5천원	조규인 1만원
안희선 1만원	이정옥 1만원	조성자 5천원
양나영 5천원	이정화 1만원	조영석 1만원
양봉률 1만원	이정희 3만원	조인성 5천원
양지영 1만원	이정희 5천원	조정자 5천원
양혜진 1만원	이종희 5천원	진봉희 1만원
양희숙 1만원	이준우 5천원	채옥연 5천원
여택동 5천원	이창수 1만원	최분규 1만원
오난옥 5천원	이채원 1만원	최승임 1만원
용마관음사 3만원	이현옥 1만원	최영희 1만원
우정미 1만원	이호동 5천원	최윤희 5천원
유경희 1만원	이효조 1만원	최창숙 5천원
유명옥 1만원	임상덕 1만원	한규매 1만원
윤윤근 1만원	장성규 5천원	한희록 1만원
이경자 1만원	장수정 1만원	허유미 5천원
이남희 1만원	장시원 1만원	홍기학 1만원

홍애분 1만원 황준원 1만원 황학영 1만원
 황미선 2만원 황지영 1만원

총합계 : 2,140,000원

무통장으로 후원하신 분

이강복 3만원 김미경 1만원

◎ 이달의 신규 후원 신청자

성기옥 황영희 이정자 김옥경

◎ 지출내역

쌀 구입비 : 1,640,000원
 기저귀 구입비 : 824,000원
 간식 구입비 : 607,280원
 케익 구입비 : 60,000원
 CMS수수료 : 44,000원
 금융결제원요금 : 44,000원
 SMS수수료 : 500원
 필요물품 구입비 : 83,070원

총지출 : 3,302,850원

※ 해오름요양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월 사보를 통해서 수입,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며 남은 금액도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해오름요양원에서는 후원자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CMS자동이체신청을 개설했습니다. 법원상 및 해오름요양원에 오시면 신청서가 구비되어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누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후원물품 보내주신 분

김갑영 어르신 보호자 : 카스타드 5통,
 야쿠르트 50개,
 박카스 1박스

변영일 어르신 보호자 : 맥콜 7통
노진덕 어르신 보호자 : 야쿠르트 100개
안태임 어르신 보호자 : 복숭아 1박스

김경순 어르신 보호자 : 포도 2박스
방지현 : 슈파택 50개

자원봉사자 모집

- ◎ 활동일시
 - 매주 1~2회 14시~15시(시간, 요일 조절 가능)
- ◎ 활동분야
 - 미술활동, 음악활동, 종이조형, 아로마요법, 생활체육, 요가, 민요, 원예, 다도, 놀이활동 등
- ◎ 신청방법
 - T. 053-766-5767 담당 사회복지사 이상혁
 - 방문접수 방법상 1층 요양원 사무실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요양원 입소 안내

- ◎ 입소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
- ◎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항목(식대, 간식비) 별도 부담
- ◎ 문의 전화: 053)766-5767 팩스, 053)766-5095

후원안내

금품후원 새마을금고 9002-1643-4050-9
 예금주 해오름요양원

물품후원 기저귀, 의약품, 세제류, 의복, 주·부식류, 생활용품 등

CMS자동이체 후원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구좌 5,000원부터)

해오름 사람들

● 직원 동정

신규 입사를 축하합니다.

황영희·이정자·김옥경 요양보호사

퇴직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주·윤윤근 요양보호사

2년여 어르신 케어에 애써주신 요양보호사님

들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후원업체 소개



하회물류(주)(www.hahofood.com)에서는 매달 어르신들의 부식에 필요한 신선한 두부를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후원업체의 사랑과 나눔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백나한 2차 일백나한 봉안법회 봉행

법왕사에서 지난 9월 20일 백고좌법회 회향 법회 시에 1차로 오백나한상 중 일백나한 봉안식을 봉행 하였습니다. 앞으로 오백나한을 다 모실 때까지 일 백나한씩 봉안법회를 봉행할 예정이오니 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4층 대적광전 주불 뒤편 좌우로 모시는 오백나한상은 중생들에게 복을 주는 복전의 의미를 갖고 있어 서민들과 가장 친숙한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모연문을 보시고 많이 동참하시어 무량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 1인 1나한 동참금 : 108만원(분할납부 가능)
- 동참계좌
 -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 농 협 702010-51-106490 법왕사

해오름마을 건립 한가족 한평 불사

동참금 한 가족 100만원(2명 이음 새겨드림)

문의 증무소(766-3747, 9088)

동참계좌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농협 702010-51-106490 법왕사



법왕사에서 불교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정식 인가를 받은 해오름요양원을 개설, 편찮으신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왕사는 해오름마을 건립을 위한 한가족 한평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해오름마을은 현재 부지 4,500여평을 마련하였으며 조만간 개원법회를 봉행하고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과 우리의 전통인 효행을 실천하는 방편인 요양원 건립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내 가족의 일처럼 한마음으로 모십니다

대구 한성병원 장례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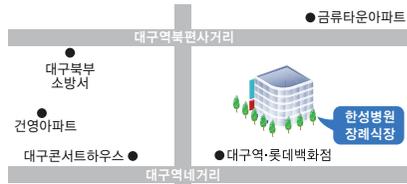
대구 한성병원 장례식장은 현대화된 쾌적한 시설과 정직, 성실한 서비스로 올바른 장례문화를 실천합니다.

- 편안한 상주실(2실 및 접견실)
- 쾌적한 지상 위치
- 사통팔통의 편리한 교통

주소 대구 북구 칠성남로30길 28

문의 대표 전화 053-253-3444 / 010-4005-4444(김중락)

찾아오시는 길



설악산 봉정암 순례법회 봉행

법왕사에서 오는 10월 27일(金)부터 29일(日)까지 2박3일간 설악산 봉정암을 참배합니다. 봉정암은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 가운데 하나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도량으로 유명하데 불심 깊은 불자들은 생전에 꼭 한번 참배하고 싶어 하는 도량입니다.

코스는 백담사 - 오세암 - 봉정암(1박) - 수렴동 계곡 - 백담사이며 회비는 12만원입니다. 출발은 10월 27일(金) 밤 12시 법왕사 주차장에서 합니다.

- 코 스 : 백담사 - 오세암 - 봉정암(1박) - 수렴동 계곡 - 백담사
- 회 비 : 12만원(2박 3일)
- 출 발 : 10월 27일(金) 밤 12시
- 문 의 : 053)766-3747



원공당 정무 대종사 6주기 추모 다례재

법왕사 회주 원공당 정무 대종사 6주기가 오는 10월 22일(음 9월 3일)(日)에 돌아옵니다. 생전에 법왕사에서 감로법문을 내리셨고 우리 불자들을 이끌어 주셨던 큰스님의 유덕을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기 위한 추모 다례재를 봉행합니다. 이날 법회에는 큰스님의 생전 모습과 입적 후 끼친 큰 영향력과 인연 있는 분들과의 교류 모습 등도 다시 볼 수 있는 추모 영상도 상영하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일 시 2017년 10월 22일(음력 9월 3일, 日)

장 소 법왕사 대적광전

법 문 주지 실상스님





법왕사 오시는 길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천대로→신천좌안도로→법왕사로 오시던 길이
공사로 인해 이용하실 수 없게 된 관계로 **신천대로**
→**상동교**→**수성못 오거리**→**용두교**→**법왕사**로
오는 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산터널 개통으로 범물동에서 법왕사까지 7분, 상인동 터널
입구에서 법왕사까지는 11분으로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 ※신천좌안 고가도로 완공시까지 네비게이션으로
'파동초등학교'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 ※매주 월~금 오전 8시~오후 5시까지 장애인복지관을
통과하여 법왕사로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